

전북지역 도로주변림과 마을 원림의 비교 고찰

- 전북 동부의 마을 원림과 서부 도로주변림을 중심으로 -

박재철 *

*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Comparative Review of the Roadside and Village Groves in Chonbuk Province

- focus on the roadside groves in the west and the village groves in the east -

Park, Jae-Chul *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lected village groves and the selected roadside groves. In Chonbuk province, the village groves were principally found in the east mountainous region and roadside groves were principally found in the west low-sloped region. They were located in the place of good accessibility and good view.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llage groves and roadside groves was considerably large in the aspect of physical, socio-behavioral condition and vegetation structure. Both were contrasted in many points. The results resolve itself into Table 2, 4, 6. This research is useful in finding the characters of the both groves and in prepar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of the groves through comparative review.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농촌취락 경관은 전방에는 논이 있고 마을 입구에는 큰 나무나 마을림이 있고 배후에는 완경사의 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담장 위에는 감나무가 있고 앞은 열려져 있는 한 장의 풍경화라고 할 수 있다.(김승환, 1992) 이러한 농촌경관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하여 인식적으로 정주하기 위한 입지선정과 주거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와 전통적 지혜가 만들어 낸 생활공간이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지형이나 자연환경, 생활이나 생산양식, 사상적 배경을 반영한 생활환경이라 할

수 있다. 농촌경관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한국인의 고향의 이미지를 분석한 것을 보면 단순한 시각적 가치성보다는 거기에 마을공동체적인 활동이나 가치가 결부된 것이 더욱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김한배, 1995)

일본에서는 농어촌지역 물리적 계획으로서 농촌계획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자연적인 입지의 재검토나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 농촌에서의 공원녹지계획, 자연자원의 보호는 물론 농촌의 경역보전 등에 관한 연구가 조원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최근의 경제성장, 도시화에 의한 환경 변화,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 농업구조

의 변화 등을 계기로 농업문제가 새롭게 재검토되고 있어서 조경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면서 지역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도시권 주변에서는 고유한 지역적 질서를 가지고 형성되어온 전원경관의 상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경관보전과 동네만들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도 전통적인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창조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농촌계획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임 외(1995, 1996)의 연구에서는 농촌 내 추가 필요시설에 관한 요구도 분석에서 공원 및 체육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휴식시설, 마을공원, 생활체육시설)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을 공동 쉼터 조성이 모임장소가 됨으로서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주민의 유대감을 갖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1993)은 마을이 해체되는 것이 사회적 추세인데 오로지 마을이 하나됨을 갖고 있다면 이웃하는 사람들간의 서로 돕는 관계와 다른 하나는 마을제사라고 대전 근교의 마을 조사 연구를 통하여 언급했는데 이를 통하여 현 농촌계획에 있어서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말하는 나-너의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농촌계획의 단위로서 군, 면 단위의 광역적인 계획이 수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마을 단위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최근들어 일어나고 있다. (박, 1993, 이, 1996) 이러한 마을 단위 농촌계획에 있어서 공동체성의 위치나 규모, 시설의 종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농촌취락에 적합한 계획수법이 개발되지 못하여 도시계획 기법이나 설계기준을 원용하는 데 그침으로서 적실성을 결여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정연, 1995) 이를 위하여는 기존의 농촌의 마을 원림이나 도로 주변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농촌계획에 있어서 오픈스페이스계획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한국 농촌의 도로나 마을 주변에 남아 있는 숲들은 한국적인 농촌경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행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박, 1994) 이러한 숲들은 마을 주변에 조성된 후 보호되어 온 숲으로서 다양한 역사,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수난을 겪고도 현재까지 존존해 있는 의미있는 숲이라고 할 수 있다.(김,1993) 이들이

훼손되지 않고 오랜 세월 지속해 온 것은 자연환경적인 조건이나 유전적 소질 이외에도 인간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을 것이다.(신, 1992) 이러한 숲들이 지역경관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는 산림법의 규제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보전되어 왔으나 준보전지의 형질변경이 쉬워짐에 따라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전북지역의 도로주변림과 마을 원림에 대한 기초연구(박, 1994, 1995)를 통해 도로주변림과 마을 원림의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 서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도로주변림과 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마을 원림의 특성을 비교 고찰하여 농촌계획의 마을 계획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II. 연구 방법

선행연구인 김(1991)의 연구대상지 중 전라북도 내 18개소의 마을 원림 가운데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의 원림과 소재지가 불명한 다송리 원림을 제외한 남원시,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그리고 완주군 등 전북 동부 내륙의 16개 마을 원림과 기타 문헌 고찰과 시,군의 협조를 얻어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6개소의 원림을 추가하여 조사하여 이 중 원림 조성의 목적 및 성격이 현저히 다른 호안림 등을 제외한 총 20개소의 원림과 전북 서부평야지역의 농촌 숲의 경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 전북 정읍지역의 김제 원평에서 정읍 감곡까지의 지방도 주변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로주변림 14개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로주변림과 마을 원림의 상대적인 특성을 구명하였다. 이의 분석에는 위치, 유형, 면적, 지형, 형태, 시설 등의 물리적조건과 보호품격지정여부, 행태, 소유 등의 사회, 행태적 조건, 임상, 교목 상층부의 구성, 주요 우점종, 수고, 흉고직경, 입목밀도 등의 식생구조분석으로 나누어서 비교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물리적 조건의 비교 분석

도로주변림이나 마을 원림은 고속도로나 도로가 나고 발로 개간을 하면서 형태나 면적이 변하고 축소되어 오

고 훼손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 경계가 모호하거나 정확한 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숲의 위치를 비교 분석해 보면 도로 주변림은 마을과는 관련이 없이 도로변에 입지하고 있고 도로건설에 의해서 규모가 작아지고 파손되어 왔으며 실제로 정읍시 감곡면 석점리의 14번 숲은 조사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멸실되어 밭으로 개간되어 버렸고 12번 숲도 부분적으로 개발되어 감곡농협건물이 들어서 버렸다. 이들 도로주변림은 특히 접근성이 양호하여 다른 용도의 개발이나 묘지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여 지가가 주변지역 전답보다 3-4배나 높으며 지속적인 파손이 우려되고 있어서 경관보전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어진다. 마을원림도 마을입구에 위치한 숲이 11개로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마을 앞이 2개

소, 10%로서 전면부에 위치한 숲이 65%로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마을 측면부에 위치한 숲이 7개로서 35%를 차지하여 측면부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마을 사람들이 친밀한 접근을 할 수 있고 경관조망이 용이한 곳에 입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로주변림은 마을과는 관련 없이 입지하여 있는 반면에 마을 원림은 마을과의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숲의 유형을 보면 마을 원림중 17개소 즉 85%가 도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주변림은 물론 마을원림도 대부분 도로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로주변림이나 마을원림 모두 접근성이 양호하고 경관조망이 양호한 가치가 높은 숲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을원림의 9개소 즉 45%가 개천변에 입지하고

<표 1> 물리적 조건 분석

구분	소재지	위치	유형	면적(m ²)	지형	형태	시설 ()안은 갯수
마을원림	1.南原市 東面 引月里	입구	도로	1.100	평지	삼각형	자연석,평석(3기),앉아될수 있는 콘크리트단(1),집수정
	2.南原市 德果面 沙谷里	옆	도로	3.000	완경사지	사다리꼴	묘(10),비석(2),석장승,강연장,쓰레기소각장(2),앉을수 있는돌단
	3.南原市 德果面 新陽里	옆	도로+동산	51	평지	원형	석축·옹벽과 계단,자연석의 반원형 앉을자리,콘크리트단(3)
	4.南原市 山内面 立石里	앞	도로+개천	220	평지	부채꼴	석장승 및 안내판,자연석평석(1)
	5.南原市 朱川面 湖景里	입구	도로+동산	3.600	완경사지	원형	음식점,주차장(자갈포장)(4),야외식당, 천막(2), 평상(2)
	6.南原市 雲峰面 삼산리	입구	도로	1.475	평지	사다리꼴	휴지통, 벤치(3), 안내판, 될수 있는 콘크리트단
	7.南原市 雲峰面 田村里	입구	도로	4.869	평지	선형	판각정, 평상, 소각통, 비닐포토보존장
	8.南原市 雲峰面 杏亭里	옆	도로	2.912	평지	사각형	중앙원로, 그네, 돌무더기(제사)
	9.長水郡 溪南面 弓陽里	입구	도로+동산	885	평지	선형	화장실, 사각정자(1)
	10.長水郡 溪南面 華陽里	옆	도로	3.225	평지	사각형	사각정자(1), 철봉(1), 묘지(1), 비석(1), 하수구, 업연조건조대
	11.長水郡 山西面 鷄仙里	입구	도로+개천	2.280	급경사지	삼각형	사각정자(1), 앉을바위, 마을푯말, 체육공원시설(오락 및 체육시설)
	12.長水郡 長水邑 路下里	옆	개천	16.377	평지	불규칙형	철재놀이시설, 음수전,목재평상(4), 각종벤취(19), 화장실, 계단(3)
	13.長水郡 長水邑 東村里	옆	도로+개천	1.360	평지	선형	쓰레기소각장,정자,중앙원로,체력단련장,앉을자리(7),하수구,우사(1),
	14.鎭安郡 鎭安邑 原延章里	입구	개천	8.000	평지	오각형	사각정자, 하마석(2), 화단, 가로등(2), 「막사(1)
	15.任實郡 江津面 신기마을	입구	도로+개천	1.960	평지	원형	비닐하우스
	16.任實郡 館村面 芳水里	앞	도로+동산	4.000	완경사지	원형	묘(3),앉을바위(5),담배비닐하우스
	17.任實郡 德峙面 勿憂里	입구	도로+동산	2.135	완경사지	직사각형	간이화장실,소각장,앉을바위(다수)
	18.任實郡 德峙面 日中里	입구	도로+개천	1.854	평지	선형	사각정자(추모정),비각,공적비,입석,방송통신시설,퍼골라(1),벤취(5),
	19.任實郡 只沙面 芳儀里	옆	도로+동산	1.304	완경사지	오각형	「원형화단(2),연못(1),비석(2)묘(2)
	20.完洲郡 龍進面 九德里	입구	도로+개천	959	평지	선형	사각정자,콘크리트평상(2),앉을수 있는 콘크리트단(2)
도로주변림	1.金堤市 金山面 구봉	도로변	도로	990	평지	원형	방공호(1),묘지(1)
	2.金堤市 金山面 관봉	도로변	도로	3.300	평지	삼각형	인도(1)
	3.金堤市 金山面 관봉	논밭주변	도로+동산	851	완경사지	사다리꼴	비석(1),묘지(1)
	4.金堤市 金山面 관봉	도로변	도로	3.300	완경사지	사다리꼴	묘지(1),비석(1),방공호(1)
	5.井邑市 甘谷面 계룡리	도로변	도로	9.900	완경사지	오각형	인도(2),묘지(15-20)
	6.金堤市 奉南面 구성	도로변	도로	2.640	완경사지	불규칙형	묘지(18)
	7.井邑市 甘谷面 계룡리	도로변	도로+동산	7.920	구릉지	원형	묘지(14),인도(1),인삼밭(1),비석(1)
	8.井邑市 甘谷面 일호동	논밭주변	독립	660	완경사지	원형	
	9.井邑市 甘谷面 감산	도로변	도로	330	급경사지	반원형	
	10.井邑市 甘谷面 화봉리	도로변	도로+동산	1.964	급경사지	원형	인도(1),원두막(1),묘지(1)
	11.井邑市 甘谷面 방교리	도로변	도로	9.900	평지	사다리꼴	묘지(4),비석(4)
	12.井邑市 甘谷面 방교리	도로변	도로	3.300	평지	삼각형	
	13.井邑市 甘谷面 석점	도로변	도로	9.900	평지	사다리꼴	
	14.井邑市 甘谷面 석점	도로변	도로	1.502	평지	선형	원두막(1)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약 반이 개천을 끼고 입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도로주변림은 개천과는 관계없이 입지해 있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숲의 면적을 비교 분석해 보면 도로주변림은 작은 것은 990m²에서 큰 것은 9,900m²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부가 1ha가 못되는 소규모였으며 마을원림도 12번 장수읍 노하리의 숲은 16,377m²에 이르러 조사 대상 원림 중 가장 넓었으나 3번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의 숲은 불과 51m²에 불과하여 규모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볼 때 규모면에서는 도로 주변림이나 마을 원림 모두 같은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평균면적을 비교해 보면 도로주변림은 평균면적이 4,033m²로서 마을원림 3,078m²의 약 1.3배의 면적을 보임으로서 대체적으로 도로주변림이 마을 원림 보다는 약간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김(1991)은 마을 원림 별 규모를 소형(0.1 -0.5ha), 중형(0.6-1.5ha), 대형(1.6-3.0ha)으로 분류하고 전국적으로 이들 규모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는데 전북 지역의 도로주변림과 마을 원림은 전국적인 규모에 비해 소규모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숲의 지형을 살펴보면 평탄지와 완경사지가 도로주변림은 각각 6개소, 5개소였으나 마을 원림은 각각 14개소, 5개소로서 이들이 전체의 78.6%, 95%를 차지함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평탄지 내지는 완경사지에 숲이 입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외 급경사지에는 도로주변림 2개소, 마을원림 1개소만이 입지해 있었다.

다음으로 시설에 있어서는 도로주변림은 8개소인 57.1%가 묘지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마을원림은 4개소로 20%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볼 때 도로주변림은 묘지를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으로 잠식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숲이 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마을 원림에서 묘지가 있는 숲은 소유면에서 보면 종종 소유의 숲 3개만이 묘지와 비석 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마을 소유의 원림에서는 2번 남원시 덕과면 사곡촌 숲을 제외하고는 묘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사회 행태적 조건 비교 분석

숲 입지의 인문지리적인 측면을 보면 도로주변림은 전북 서부 평야지역(익산, 군산, 김제, 정읍)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마을 원림의 경우는 전북 동부 산간지역(무주,

〈표 2〉 물리적 조건 비교 분석

구 분	도로주변림	마을원림
형성과정	식재 및 조림, 개간, 도로확·포장 등에 의함	역사, 문화적인 배경
위 치	도로변	마을입구 11(55%), 옆 7(35%), 앞 2(10%)
유 형	도로변	도로변 17(85%), 개천 (45%), 동산형 3(도로+동산, 15%) : 종종소유, 도로+개천 6(30%)
면적(평균)	4,033m ²	3,078m ²
지 형	평탄지 6, 완경사지 5, 급경사지 2, 구릉지 1	평탄지 14, 완경사지 5, 급경사지 1
시 설	묘 8(57.1%)	묘 4(20%, 종종소유)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완주)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성동기를 보면 도로 주변림의 경우를 보면 마을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서 수령이 평균 52년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져 대부분 해방 이후 식재 내지는 조림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중 식재한 것이 10개소로 71.4%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연료 채취와 목재획득을 위해 식재한 것으로 보이며 60,70년대 산림녹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림한 것이 2개소, 식재와 조림이 함께 이루어진 곳이 2개소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마을 원림은 조성동기가 김(1991)의 논문 등에서 밝힌 것처럼 사상, 문화적인 배경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적인 지정 여부를 보면 도로주변림에서는 5번 숲이 풍치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다른 숲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마을 원림 중에서는 노거수림 1개소, 군보호림 1개소, 마을 나무 1개소로 지정되어 있어서 3개소 즉 15%만이 법적인 지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범으로는 자연휴양림은 3ha이상 규모의 산림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수는 개체목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을 원림이나 도로 주변림과 같은 숲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장치가 적절치 못하므로 계속적인 훼손 및 교란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마을원림이나 도로 주변림은 마을 휴양림이나 농촌 휴양림 제도를 만들어서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는 가운데 관리 및 보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유면에서 비교해 보면 도로 주변림은 사유가 12개소로 8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종 소유가 2개소인데 반해 마을 원림은 마을 소유가 14개소(70%)로 가장

많고 종종 소유 3개소, 시·군유지 2개소 복합 1개소로 되어 있어서 도로주변림은 대부분 사유림인데 반해 마을 원림은 대부분 마을 소유 내지는 종종 소유로 큰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임상을 살펴 보면 도로주변림은 침엽수림이 13개소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개소는 대나무림이었으며 마을 원림은 활엽수림이 11개소(55%), 침엽수림 6개소(30%), 혼효림 3개소(15%)로서 도로주변림은 침엽수림이 대부분인 반면 마을 원림은 활엽수림이 절반 이상

3. 식생 구조의 비교 분석

〈표 3〉 사회 행태 조건 분석

구분	소재지	보호품격지정여부	행태	소유
마을 원림	1.南原市 東面 引月里	미지정	휴식, 휴양, 벗짚단 야적	마을
	2.南原市 德果面 沙谷里	미지정	성묘, 휴식, 마을회의, 주차,우사	마을
	3.南原市 德果面 新陽里	마을나무	휴식, 놀이, 벗짚단, 맷저, 야적	마을
	4.南原市 山内面 立石里	미지정	잡귀에방, 휴식, 제사, 관광	사유지
	5.南原市 朱川面 湖景里	미지정	휴식, 성묘	종종
	6.南原市 雲峰面 삼산리	군보호림	방목, 주차, 휴식, 체력단련, 제사	마을
	7.南原市 雲峰面 田村里	미지정	휴식, 마을행사, 퇴비만들기	마을
	8.南原市 雲峰面 杏亭里	미지정	야영, 그네, 휴식, 피크닉,	마을
	9.長水郡 溪南面 弓陽里	미지정	휴식, 방목(혹염소)	마을
	10.長水郡 溪南面 華陽里	미지정	휴식, 방목, 체력단련, 놀이, 농기구보관	마을
	11.長水郡 山西面 鷄仙里	미지정	휴식, 모임	마을
	12.長水郡 長水邑 路下里	노거수림	야영, 놀이, 운동, 체력단련, 산책	복합
	13.長水郡 長水邑 東村里	미지정	방목, 표고재배, 놀이, 휴식, 제사	마을
	14.鎭安郡 鎭安邑原 延章里	미지정	방목, 표고재배, 담배건조, 체력단련, 농기구보관, 주차	군유지
	15.任實郡 江津面 新기마을	미지정	휴식, 마을행사, 모임 「휴식,축산	마을
	16.任實郡 館村面 芳水里	미지정	거의 이용 안함	마을
	17.任實郡 德峙面 勿憂里	미지정	방목(혹염소), 염연초 건조, 성묘, 휴식	종종
	18.任實郡 德峙面 日中里	미지정	야영, 휴식, 주차, 취사, 물놀이	마을
	19.任實郡 只沙面 芳溪里	미지정	휴식, 성묘, 모임	종종
	20.完洲郡 龍進面 九德里	미지정	쓰레기투기, 휴식	마을
도로 주변림	1.金堤市 金山面 구봉	미지정	성묘, 휴식, 피크닉	사유
	2.金堤市 金山面 관봉	미지정	휴식, 피크닉	사유
	3. “ “	미지정	성묘, 휴식, 피크닉, 연료채취, 간벌	사유
	4. “ “	미지정	성묘, 휴식, 작업, 피크닉, 모임	종종
	5.井邑市 甘谷面 계룡리	풍치보안림	성묘, 모임, 휴식, 피크닉	종종
	6.金堤市 奉南面 구성	미지정	성묘, 휴식, 피크닉	사유
	7.井邑市 甘谷面 계룡리	미지정	성묘, 휴식, 피크닉	사유
	8.井邑市 甘谷面 일호동	미지정	휴식	사유
	9.井邑市 甘谷面 감산	미지정	감상	사유
	10.井邑市 甘谷面 화봉리	미지정	성묘, 휴식, 피서	사유
	11.井邑市 甘谷面 방교리	미지정	성묘, 휴식, 피크닉, 모임, 산책	사유
	12.井邑市 甘谷面 방교리	미지정	모임, 휴식, 피크닉, 산책	사유
	13.井邑市 甘谷面 석점	미지정	모임, 휴식, 피크닉	사유
	14.井邑市 甘谷面 석점	미지정	휴식	사유

〈표 4〉 사회 행태적 조건 비교 분석

구분	도로 주변림	마을 원림
인문지리적 특성	서부평야지역	동부산간지역 (대부분)
조성 동기	연료채취 및 생활목재이용, 산림녹화	역사·문화·사상적인 배경 (다양한 동기)
법적인 지정여부	풍치보안림 1개소	노거수림 1개소, 군보호림 1개소, 마을나무 1개소
소유	사유 12(85.7%), 종종소유 2	마을소유 14(70%), 종종소유 3, 시·군소유 2, 복합 1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수에 있어서는 도로주변림은 교목상층부의 경우 30개에서 6000개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으며 마을 원림은 4개에서 205개로 또한 편차를 보였다. 이러한 편차는 규모의 차이보다는 밀도의 차이 때문으로 도로주변림이 마을 원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개체수를 보면 도로주변림이 12766개로 마을 원림의 668개 보다 약 2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목 상층부의 출현종수를 보면 도로주변림은 1-4개종이 출현하였고 마을 원림은 1-12개의 종이 출현함으로써 마을

원림이 좀 더 수종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종수를 보면 도로주변림은 평균 1.6종이 출현하였고 마을 원림은 46종이 출현하여 마을 원림이 29배 높은 출현율을 보임으로서 마을 원림이 식생 다양성 측면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

교목 상층부 주요 우점종을 보면 도로주변림은 소나무, 곰솔, 리기다 소나무의 Pinus계통의 수종이 우점종이었고 마을 원림의 경우에는 소나무(9개소, 45%), 개서어나무(5개소, 25%), 느티나무(3개소, 15%), 왕버들, 팽나무(1개소, 5%) 등의 순으로 우점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소나무가 우점종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을

〈표 5〉 식생 구조 분석

구분	소재지	임상	교목상층의구성		주요우점종 ()은 개체수	수고	흉고직경	입목밀도 (주/m ²)	비고
			출현종수(종)	총개체수(주)					
마을 원림	1.南原市 東面 引月里	활엽수림	2	20	개서어나무(19)느티(1)	18-25	40-100	0.018	
	2.南原市 德果面 沙谷里	침엽수림	7	60	소나무(60)	18-32	28-96	0.02	
	3.南原市 德果面 新陽里	활엽수림	2	8	개서어나무(5)느티(3)	10-20	20-200	0.018	
	4.南原市 山内面 立石里	활엽수림	1	4	느티나무(4)	8-20	30-100	0.064	
	5.南原市 朱川面 湖景里	침엽수림	1	124	소나무(124)	8-15	8-44	0.054	
	6.南原市 雲峰面 삼산리	침엽수림	7	80	소나무(72)벗나무(3)	9-17	20-76	0.038	
	7.南原市 雲峰面 田村里	혼효림	4	185	소나무(140)상수리(41)	11-26	16-56	0.026	
	8.南原市 雲峰面 杏亭里	활엽수림	2	76	개서어(73)느티나무(3)	18-30	32-56	0.051	
	9.長水郡 溪南面 弓陽里	활엽수림	4	45	아까시나무(40)	15-30	20-94	0.064	
	10.長水郡 溪南面 華陽里	침엽수림	3	205	소나무(189)상수리(10)	23-32	20-100	0.028	
	11.長水郡 山西面 鷄仙里	활엽수림	3	8	개서어(4)느티나무(3)	20-28	48-130	0.012	
	12.長水郡 長水邑 路下里	활엽수림	12	195	개서어(52)느티(58)팽(55)	25-32	22-156	0.018	
	13.長水郡 長水邑 東村里	활엽수림	6	25	개서어나무(12)느티(6)	17-32	32-130	0.016	
	14.鎭安郡 鎭安邑 原延亭里	활엽수림	6	124	서어(7)느티(88)팽(32)	16-30	12-110	0.011	
	15.任實郡 江津面 신기마을	활엽수림	4	21	느티나무(10)개서어(9)	9-18	16-70	0.014	
	16.任實郡 館村面 芳水里	침엽수림	3	55	소나무(50)	12-28	38-54	0.019	
	17.任實郡 德峙面 勿憂里	침엽수림	1	40	소나무(40)「개서어(2)	18-23	24-50	0.012	
	18.任實郡 德峙面 日中里	혼효림	9	22	소(12)팽(2)청떡갈(3)상수리(2)	13-22	8-70	0.013	
	19.任實郡 只沙面 芳候里	혼효림	10	17	소나무(5)은행나무(4)	7-9	22-120	0.023	
	20.完洲郡 龍進面 九德里	활엽수림	8	22	왕버들(12)느티나무(9)	14-18	28-120	0.033	
도로 주변 림	1.金堤市 金山面 구봉	침엽수림	1	30	곰솔(30)	10	10-30	0.03	
	2.金堤市 金山面 관봉	침엽수림	1	350	곰솔(350)	7-8	8-20	0.10	
	3. “ “	혼효림	3	86	갈참, 밤, 감, 소나무	10-12	8-25	0.10	
	4. “ “	침엽수림	2	251	소나무, 갈참나무	10-15	14-34	0.07	
	5.井邑市 甘谷面 계룡리	침엽수림	1	1,455	소나무(1,455)	10-13	8-28	0.14	
	6.金堤市 奉男面 구성	침엽수림	1	170	소나무, 리기다	8-10	10-20	0.06	
	7.井邑市 甘谷面 계룡리	침엽수림	2	499	소나무, 리기다	6-13	6-13	0.06	
	8.井邑市 甘谷面 일호동	침엽수림	2	127	소나무(116)리기다(11)	12	7-15	0.19	
	9.井邑市 甘谷面 감산	활엽수림	1	多	대나무(왕대)	10	3-5		
	10.井邑市 甘谷面 화봉리	침엽수림	2	477	소나무, 리기다	15-17	8-34	0.24	
	11.井邑市 甘谷面 방교리	침엽수림	1	6,000	소나무	10-11	10-20	0.60	
	12.井邑市 甘谷面 방교리	침엽수림	2	2,000	소나무, 리기다	8-10	10-20	0.60	
	13.井邑市 甘谷面 석점	침엽수림	1	6,000	리기다소나무	10-15	10-25	0.60	
	14.井邑市 甘谷面 석점	침엽수림	2	301	소나무, 리기다	5-10	6-17	0.20	

원림의 9번 숲인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숲은 아까시나무림으로서 외래식물이지만 마을림으로의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마을원림을 구성하는 수종으로서 아까시나무를 고려해 볼만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였다.

출현빈도를 분석해 보면 도로주변림은 소나무가 9개소인 64.3%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마을 원림은 느티나무가 10개소(50%)로 가장 높고 소나무, 개서어나무가 각각 9개소(45%), 팽나무, 참나무류가 각각 3개소(15%)로 나타나서 도로주변림은 소나무가 출현빈도가 높은 반면 마을 원림은 느티나무가 출현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령을 살펴보면 도로주변림은 25-70년생으로서 평균 52년생인데 반해 마을 원림은 수백년 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수령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도로주변림과 마을 원림과는 수령면에서 비교가 안되었다.

수고를 보면 도로주변림은 수고의 평균범위가 10-12m이고 마을 원림은 평균 수고가 21.4m로서 약 1.9배에 달하였다. 지역내에서 수고의 차의 평균을 보면 도로주변림이 2.3m이고 마을 원림이 9.9m로서 마을 원림이 4.3배의 차를 보여서 수고의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고의 차이는 같은 지역 내 생육환경이 비슷한 곳은 차이가 거의 없고 경사지와 같이 환경조건이 차이가 나는 곳이 수고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아까시나무림과 타 수종이 섞여 있는 경

우가 수고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흉고직경을 보면 도로주변림이 평균 15.5cm이고 마을 원림이 42.9cm로서 마을 원림이 2.8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입목밀도를 보면 도로주변림이 0.21주/m²이고 마을 원림이 0.028주/m²로서 도로주변림이 밀도상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층식생을 보면 도로주변림은 하층식생의 출현종수가 평균 6.8종인데 반하여 마을 원림의 경우에는 하층식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지피 및 초화류의 경우에는 도로주변림의 경우는 참억새가 우세종으로 나타났고 마을 원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피 및 초화류가 미약했다. 도로주변림의 경우에는 외래식물인 미국자리공이 7개 지역에서 출현되어 도로변 자동차 배연에 의한 토양환경의 열악성을 알 수 있었다.

흉고직경은 도로주변림이 평균 15.5cm이고 마을 원림이 42.9cm로서 마을 원림이 2.8배 크나 밀도는 마을 원림이 0.028주/m²이고 도로주변림이 0.21주/m²로서 7.5배 큰 것으로 나타나 흉고직경의 증가보다 밀도는 2.7배 더 큰 비율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밀도로 임상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표 6> 식생구조 비교 분석

구 분	도 로 주 변 림	마 을 원 림
임 상	침엽수림 13(95%), 대나무림 1	활엽수림 11(55%), 침엽수림 6(31%), 혼효림 3(15%)
개체수(교목상층부, 평균)	1,276.6개	16.8개
출현종수(교목상층부, 평균)	1.6종	4.6종
주요 우점종(교목상층부)	소나무, 곶술, 리기다소나무, 대나무	소나무 9(45%), 개서어나무 5(25%), 느티나무 3(15%), 왕버들 1(5%), 팽나무 1(5%)
출현빈도(교목상층부)	소나무 9(64.3%)	느티나무 10(50%), 개서어나무 9(45%), 팽나무 5(5%), 참나무류 3(15%)
수령(교목상층부, 평균)	52년	알수 없음 (몇 백년, 100년이상)
수고(교목상층부, 평균)	11m	21.4m
지역내 수고의 차 (교목상층부, 평균)	2.3m	9.9m
흉고직경(교목상층부, 평균)	15.5m	42.9m
입목밀도(교목상층부, 평균)	0.21주/m ²	0.028주/m ²
하층식생출현종수(평균)	6.8종	거의 없음
지 피 및 초 화 류	참억새(우세종)	거의 없음

IV. 요약 및 결론

전북지역의 도로주변림과 마을원림을 비교분석하여 고찰한 결과 도로주변림은 주로 서부 평야지역에서 나타났고 마을원림은 동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도로주변림과 마을원림 모두 도로주변이나 마을 입구 등 접근이 용이하고 경관 조망이 용이한 곳에 입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로주변림과 마을 원림은 조성동기 및 역사, 임상 및 식생의 구조, 밀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성동기면에서 보면 도로주변림은 식재 및 조림에 의해서 형성된 반면 마을 원림은 역사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 다 대부분 평탄지나 완경사지에 조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유면에서도 도로주변림은 사유림이 대부분인 반면 마을 원림은 마을 소유나 종종 소유가 대부분이었다. 임상이 도로주변림이 주로 침엽수림인데 비하여 마을 원림은 활엽수림의 비율이 더 높았다. 흉고 직경은 마을 원림이 도로주변림 보다 2.8배 컸고 입목밀도는 도로주변림이 마을 원림 보다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 고찰을 통하여 각각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한 각각의 보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를 후속 보완하여 좀 더 확대 발전,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1. 김학범(1991), "한국의 마을 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김학범 외(1993), "고문헌에 나타난 한국 마을숲의 시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1(1): 19-40.
3. 김한배(1993), "고향의 현상학 시론 - 한국 거주경관의 원형 탐색",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터전, 3 : 66 - 77.
4. 김승환 외(1992), "한국 농촌취락의 문화, 경관에 관한 연구", The 29th IFLA World Congress, Proceedings Tradition and Creation, Seoul : KIFLA: 159-163.
5. 김정연(1995), "농촌취락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1호 : 89 - 98.
6. 박재철(1994), "전북 정읍지역 도로주변림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1) : 53 - 63.
7. 박재철 외(1994), "정읍지역 도로주변림의 식생구조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논문집 제16집: 231-241.
8. 박재철 외(1995), "전북지역 마을 원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논문집 제17집: 237-255.
9. 박서호(1994), "대전권내 자연마을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학회지, 81.
10. 박서호(1990),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호 : 140 - 143.
11. 신세균 외(1992), "보호수의 관리실태 및 관리대책", 한국정원학회지, 10(2) : 61-90.
12. 이경진(1996), "환경체계 설정을 통한 환경계획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2권 1호: 91-99.
13. 이재근(1995), "농촌문화마을 조성계획과 사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1호: 75-87.
14. 임승빈 외(1995),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의 비교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1호: 49-63.
15. 임승빈 외(1995), "취락구조개선 마을의 주민의식 및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2호: 53-66.
16. 임승빈 외(1996), "농촌마을 공동쉼터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96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초록집 : 21-22.
17. Tabada(1992), The 29th IFLA World Congress, Proceedings Tradition and Creation, Seoul : KIFLA: 129-132.